국별 리포트

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12. 14

I. 일반개황 1
Ⅱ. 경제동향 2
Ⅲ. 정치·사회동향 10
Ⅳ. 국제신인도12
V. 종합 의견 1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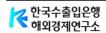
I. 일반개황

국	명	스리랑카 (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)	수		모	콜롬보(Colombo)
면	적	66천 km² (한반도의 2/7)	G	D	Р	854억 달러 (2017 ^e)
인	구	21.4백만 명 (2017°)	1 인	당 G	DР	3,990 달러 (2017 ^e)
정 치 체	제	대통령중심제	통호	화 단	위	Sri Lanka Rupee(SLR)
대 외 정	책	독자적 실리노선	환 원	울(달 =	러당	153.4 (2017°)





- □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2수준임.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1.4백만 명이며, 싱할리족(75%)과 타밀족(11%)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□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'실론'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함.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, 정치개혁 실시, 연합정부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에 있음.
- □ 청정해안, 열대성 기후 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, 인도양의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상물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.



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丑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 ^e	2018 ^f
경 제 성 장 률	3.4	5.0	4.8	4.4	4.7	4.8
소비자물가상승률	6.9	2.8	2.2	4.0	6.0	5.0
재 정 수 지 / G D P	-5.2	-6.2	-7.0	-5.4	-5.2	-4.7

자료: IM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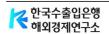
□ 민간소비 성장세 완화 등으로 2017년 4.7% 경제성장 전망

- o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관광업 호조로 9%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, 2013년 가뭄·홍수와 미국과 EU등 수출시장의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된 이래 4%대의 성장률*을 보이고 있음.
 - * 경제성장률(%): 8.0('10) → 9.1('12) → 3.4('13) → 4.8('15)
- o 2016년 경제성장률은 4.4%, 2017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4.7%로 인프라 투자 증가로 총투자는 증가하나 그 외 민간소비, 정부지출, 순수출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임.
- 민간소비는 2016~17년 가뭄과 홍수에 따른 생필품 가격 인상과 2017년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'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됨.
 - * 소비자물가상승률(%): 2.2('15) → 4.0('16) → 6.0('17e)
- 정부지출은 IMF와 합의*한 재정적자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GDP의 20.9%에서 2016년 19.7%로 줄어들었고, 2017년에도 19.7%로 예상됨.
 - * IMF는 '16.6월 15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(Extended Fund Facility, EFF) 제공을 승인하면서 재정적자, 세수, 공공부채, 외환보유고의 중장기 목표와 개혁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리랑카 정부의 이행경과를 정기점검 및 평가하고 있음.
- 순수출은 2016년은 부진한 세계경기 회복세와 의류, 차(茶) 등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(-9.6%)을 하였으나, 2017년에는 의류와 차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.

- o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5% 전후로 예상되며, 세계경기회복과 중국 등 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, 민간 투자 확대가 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.
 - *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(%): 4.8('18^f) → 5.0('20^f) → 5.2('22^f)
 - 그러나 숙련된 인력 부족, 열악한 인프라, 여성의 낮은 노동참여율(36%)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, 가뭄·홍수 피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에도 대비가 필요함.

□ IMF 경제개혁 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

- o 지난 20년간 재정적자/GDP 비중이 평균 -8%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 시리세나 정권 출범 이후 무분별한 차입을 줄이고 2016년부터 IMF의 개혁정책을 이행하여 재정적자 비중을 -5%대로 개선함.
- 2016년에는 재정적자 비중 목표치인 -5.4%를 달성하였으나, 2017년과 2018년 목표치(각 -4.8%, -4.0%)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 - * IMF 재정수지/GDP 전망치(%): -5.2('17°), -4.7('18^f)
- o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2016년 말 담배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(각 72%→ 86%, 11%→15%)하고 2017년에는 세제개편안 시행을 통해 자본취득세, 금융거래세 등을 신설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인상함.
- 2020년까지 세수/GDP 비중 목표 15%를 달성해야 하나, 2017년 세수 확대로 동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.
- o 공공부채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차관의 출자전환과 차입구조 개선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있음.
- 공공부채/GDP 비중이 79.3%(2016년)로 매우 높고 IMF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68% 수준으로 개선해야 함.
- 2017. 7월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투입된 중국차관(12.7억 달러) 중 90%인 11.2억 달러를 출자하여 부채를 크게 줄이고, 대신 항구 지분 70%를 중국 기업 앞 매각함.
- 또한, 2015년 시리세나 정권 출범 이후 고이자율의 중국 차관* 대신 ADB, 한국, 일본 등에서 낮은 이자율의 차관을 도입하여 이자비용을 줄임.
 - * 일례로 함반토타 항구건설사업 앞 중국차관의 이자율은 6.3%로 세계은행 (WB)이나 ADB 차관의 이율 0.25~3%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었음.



2. 국제 경제

< 丑 2>

주요 국제경제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 ^e
- 경 상 수 지	-2,540	-1,987	-1,882	-1,942	-2,094
경 상 수 지 / G D P	-3.4	-2.5	-2.4	-2.4	-2.5
상 품 수 지	-7,608	-8,287	-8,388	-9,090	-10,125
수 출	10,394	11,130	10,547	10,310	11,238
수 입	18,003	19,417	18,935	19,400	21,363
외 환 보 유 액	6,611	7,316	6,543	5,189	6,000
총 외 채 잔 액	43,000	43,000	44,800	46,000	47,400
총외채잔액/GDP	57.7	54.2	56.3	57.1	56.7
D. S. R.	11.7	13.0	13.8	11.5	12.3

자료: IMF, EIU, OECD.

가. 대외거래

□ 상품수입 확대,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세 유지

- o 석유 등 중간재 수입의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 추세이며, 관광업의 성장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흑자 등에도 불과하고 상품수지 적자폭을 상쇄 하기에는 부족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 - 지난 5년간(2013~17년) 2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, 경상수지/GDP 비중 2% 중반대를 기록하였으며 IMF에 따르면 향후 5년간(2018~2022년) 에도 유사한 추이로 경상수지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.
- o 외환보유액의 주요 원천이자 GDP의 10%를 차지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액 또한 대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동지역에서의 근로자 수입 감소와 여성 근로자의 해외근로 제한에 따른 인력 감소로 송금 규모가 줄어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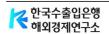
나. 외채상환능력

□ 외채규모가 과중하고 환율상승으로 상환부담 증가

- o 총외채잔액/GDP 비중은 2016년 57.1%로 경제규모 대비 외채잔액이 높은 편이며, 공공부채/GDP 비중도 2016년 79.3%로 IMF의 경제개혁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GDP의 68% 수준으로 축소해야 함.
- o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: D.S.R.)은 외채비용증가 및 상업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증가 등으로 10% 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, 이자 비용이 2016년 정부수입의 38%를 차지할 정도로 과중한 상황임.
- o 공공부채 중 74.3%가 달러표시 채권으로 최근 루피화 약세에 따른 미달러 대비 환율의 상승세로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 - 스리랑카 루피화/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2차례 기준금리 인상('16.12월, '17.3월)과 발전용 석유 수입 급증으로 꾸준히 상승*하고 있음.
 - * 루피화(Rs)/미달러(U\$): 149.7('16.12) → 153.4('17.6) → 153.5('17.10)
 - 2018년 연평균환율 예상치는 159.4로 환율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부채 만기도래시 루피화 환산 외채상환액이 늘어나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.

□ '부채의 덫'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

- o 세계은행은 11월에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2018을 발표하면서 남아시아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고, 이 중 스리랑카의 경우 총 외채규모, 총외채/총수출 비중 급증으로 부채상환 능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타 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외환보유액을 문제로 지적함.
 - 총외채규모는 2011년 258억 달러에서 2016년 460억 달러로 5년 만에 80% 가량 증가하였고, 총외채/총수출 비중 또한 262%(2016년)로 부채 상환부담이 매우 큰 수준임.
 -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은 낮은 수준(2016년 19.7%)이나 단기외채/외환보 유액 비중은 매우 높아(2016년 174%) 유동성 대비에 매우 취약함.



3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만성적인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대외충격에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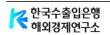
- o 주요 외화소득원인 의류·차 수출, 해외근로자 송금이 세계경기에 민감하고 외채상화을 위한 이자비용이 과중하여 만성적인 외화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.
- 2017년 말 예상 외환보유고는 60억 달러(2.6개월치 수입액)로 2016년말 51.9억 달러(2.4개월치 수입액) 대비 15.6%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*임.
 - * IMF와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외환보유고를 5개월 수입액 수준으로 확대 필요

□ 취약한 국내 제조기반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

o 2009년 30년에 걸친 내전 종식 이후 국가경제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여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였으나, 국내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오히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로 연결되면서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.

□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경제발전에 걸림돌

- o 몬순*(우기)시기가 예상을 벗어나면서 수시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과 농업 생산 감소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
 - * 적도에서 불어오는 남서계절풍(5~9월), 벵골만에서 불어오는 북동 계절풍(10~1월) 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비를 가져오며, 이에 맞춰 벼농사를 함.
 -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는 40년래 최악의 가뭄으로, 5월에는 14년래 최악의 수해로 주택, 도로, 농축수산업 등 사회 전반에 대규모 피해를입었으며, 벼농사 피해보상과 화력발전용 유류수입 등으로 정부예산지출이늘어남.
 - UN에 따르면 25개 州 중 15개 州가 수해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도 60만 명에 달하며 2017년 쌀 생산량이 4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임.
 - 스리랑카 기상청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엘니뇨(El Nino)로 인한 가뭄을 예상하고 있어 2018년에도 농업생산량 감소가 예상됨.

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서남아 물류 허브로 발전 가능

- o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고 남쪽으로는 더 이상 육지가 없어 예전부터 동서양 항해의 중간기착지이자 동서교역의 관문이었음.
- o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의 함반토타항 운영권과 지분을 확보*하고 콜롬보항 개발사업**도 추진하는 등 인도양의 관문인 스리랑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.
 - * 함반토타항 개발사업
 - 중국국영항만기업이 스리랑카항만공사로부터 99년간 함반토타항 관리·운영권을 확보하고 11억 2천만 달러(1조 2,600억 원)을 투자하여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서남아시아 최대 항구로 개발하는 사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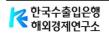
** 콜롬보항 개발사업

- 콜롬보항 인근에 14억 달러(1조 5,000억 원)를 투자하여 계획된 면적 33만평 중 20%는 중국이 완전 소유하고 나머지는 99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항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.
- o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, 아프리카의 에너지와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주요 항구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항구들을 연결하면 진주목걸이 모양이 되는 것을 일컬어 '진주목걸이 전략'이라고 불림.
 - 서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과다르, 스리랑카 함반토타와 콜롬보, 방글라데시 치타공이 해당되며, 해당국 정부는 이를 자국 물류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코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함.

<그림 1> 중국의 '진주목걸이 전략' 주요 거점 항구



자료: 연합뉴스, "中, 스리랑카 함반토다 항 운영권 확보", 2017.7.30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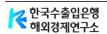
□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의 성장 잠재력 보유

- o 섬나라의 특성상 4면이 바다인 관광자원, 많은 불교유적지,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관광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한 수준임.
 - 2013년 론리 플래닛(Lonely Planet)이 꼽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특히 세계 최대 차(茶) 생산국 중 하나로 고원 지대에 위치한 차 밭이 중요 관광자원과 외화수입원으로 각광받고 있음.
 - 관광객 수가 지난 5년간 연평균 22%이상 증가하였으며, 2016년 스리랑카 방문 외국인은 200여만 명에 달함.
- o 정부는 관광업의 성장세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"관광전략계획 2017-2020"(Tourism Strategic Plan 2017-2020)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.
 - 관광업이 2016년 GDP의 14.5%를 차지하고 고용창출, 국내외 투자유치, 외화수입원 확보, 외국인투자유치, 자연보존을 위한 예산확보 등 부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 - 정부는 2020년까지 관광순수입을 현재의 35억 달러(2016년)에서 70억 달러까지 높이고 관광객 연간 4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함.
- o 하얏트, 쉐라톤, 샹그리-라 등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도 수도 콜롬보의 시설을 증축하고 타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국가개발계획('강력한 스리랑카(Balagathu Lanka)') 수립

- o 2017. 1월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수출확대 및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인프라 및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천명함.
- o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남서부 경제회랑, 북동부 경제회랑(Economic Corridor)을 구성하고, 도로, 발전소, 항만, 공항 등 인프라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별 맞춤 개발계획을 수립함.
- o 또한 관광업과 농업 등 주요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2020년 내에 세계은행 사업환경지표(Doing Business Index) 7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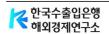
-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, 스리랑카의 사업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111위로, 서남아시아에서는 부탄(75위), 인도(100위), 네팔(105위) 보다도 낮음*(한국은 4위).
- * 부문별로는 소액투자자보호(43위)의 순위가 높고 건축인허가(76위), 창업(77위), 대외무역(86위) 등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, 신용획득(122위), 재산등록(157위), 조세납부(158위), 계약 실행(165위)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.

□ EU의 일반관세특혜(GSP+) 재부여로 무관세 수출 가능

- o EU는 개발도상국이 무역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선정(善政, good governance)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반관세특혜(GSP+ :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Plus)를 대 EU 수출품에 제공하고 있음.
 - 스리랑카는 2005. 7월부터 EU의 GSP+ 지위를 활용하여 7,200가지 품목을 EU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했으나, 2010. 8월 EU는 내전시 발생한 인권침해가 UN결의안 등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GSP+ 부여를 취소함.
- o 스리랑카 정부는 2015. 4월 19차 개헌 등을 통해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약속하고 2016. 7월 EU 앞 재부여를 신청하였고, 2017. 5월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EU 의회 결의를 통해 재부여가 발효됨.
 - 다만 EU는 GSP+ 재부여 이후에도 스리랑카의 인권 개선노력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노력이 부족할 경우 GSP+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힘.
- o EU는 스리랑카의 최대 수출시장(2016년 수출비중 30.1%)으로 스리랑카의 대 EU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스리랑카 전체 수출의 45%를 차지하는 섬유·의류 수출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임.

□ 상위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2018년 예산안 수립

- o 정부는 11월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 증가, 세수증대, 재정 감축으로 2020년까지 상위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함.
 - 스리랑카의 1인당 GNI는 3,780달러(2016년)로 세계은행 기준 저중소득국 이며 상위중소득국 현재 기준은 3,956~12,235 달러임.

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 안정

□ 정치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각료 재정비 및 대외경제정책 정극 추진

- o 2015년 초 시리세나 대통령 당선 이후, 정치개혁을 단행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으로 최근 개각을 단행하여 국영기업 개혁 등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.
 - 특히 신임 재무부 장관이 된 사마라위라 장관은 통신부 장관 재임 당시 국영통신사 민영화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 IMF 개혁 과제 중 가장 지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영기업 개혁과 민영화*에서 앞장설 것으로 보임.
 - * 함반토타 항구 지분 매각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가 없으며 스리랑카 항공, 마딸라 국제공항 등 국영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.
- o 또한 인도와 경제기술협력협정(ETCA) 체결 추진, 중국 및 싱가포르와 자유 무역협정(FTA) 체결 논의, 미국 및 터키와 양자무역협정 체결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중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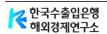
□ 2018년 조기총선에서 집권당 승리시 정치 안정 유지 가능

- o 2015년 총선 당시 시리세나 대통령 소속당인 UPFA가 과반수 확보에 실패 하여 UNP와 2년간의 연정으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권력을 유지해왔으나 연정기간 동안 지지기반이 다른 두 당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2018년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.
- o 시리세나 집권당은 내년 총선시 과반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정 구성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2. 사회 안정 (소요/사태)

□ 타 서남아 국가에 비해 양호한 인간개발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

- o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필리핀, 버마(현 미얀마)와 함께 아시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으며, 유엔개발계획(UNDP)의 인간개발지수(2016년)에서 도 188개 대상국 중 73위^{*}를 차지하여 다른 서남아 국가(인도 131위, 방글라 데시 139위, 파키스탄 148위)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.
 - * 순위 인접국 : 터키 71위, 72위 베네수엘라(한국은 18위)



□ 빈부격차 개선은 요원하여 사회불안 요소 상존

o 최근 스리랑카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소득소비 조사결과에 따르면, 2016년 지니계수는 0.45로 3년 전의 0.48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,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는 여전하여 저소득층이 집중된 북동쪽 지역의 사회불만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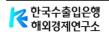
3. 국제관계

□ 중국, 인도의 삼각관계에서 실리노선 추구

- o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스리랑카와 가까워지기 위해 중국과 인도는 경제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둔 전 라자팍사 대통령과는 달리 현 시리세나 대통령은 인도와의 관계 회복과 중립적 위치에서 경제적 실리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.
- o 전 라자팍사 대통령은 재임(2005~2015년) 기간 동안 함반토타 항 개발사업 등 중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의 4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으나, 중국으로부터 4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도입하여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비판을 받음.
 - 중국 차관의 이율은 평균 6% 이상으로 이자비용만으로도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- o 인도와는 2000년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이후 경제기술협력협정(ETCA*)를 체결할 예정('17년 말까지 타결 목표)이며,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간 국빈방문 등 양국 관계가 호전됨.
 - * Economic &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: 협정 국가 간 제품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류, 기술 연구개발, 인력교류까지 포괄하는 경제적 동반자 협정

□ 미국, 유럽과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

o 미국은 스리랑카 독립 이후 원조, 재난구조, 대미무역관세 특혜부여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해왔고, 유럽 또한 GSP+ 지위를 부여하여 관세혜택을 제공해 왔음. 미국과 유럽 모두 스리랑카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 개입하여 스리랑카 정부의 개선노력에 따라 경제 혜택 수위를 조절함.



- 1983~2009년 26년 간의 내전 중 7만명의 희생자와 30만 명의 국제피난민이 발생했고, 인권유린·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미국, 유럽, 유엔 등 국 제사회는 관련 사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함.
- o 스리랑카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실종자위원회 설립(2013년), 실종자사무소 설치(2016년)를 추진하고 2017. 3월 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스리랑카 인권결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일 약속함.
 - 화해사무국(Reconciliation Secretariat)과 실종자사무소 설치법 제정, 군 점령 민간 소유지 반환 등이 해당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소액 연체경험은 있으나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정상적

o '17년 6월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20.3억 달러(단기 3.9억 달러, 중장기 16.4억 달러) 중 중장기 승인금액의 0.01%에 해당하는 소액(20만 달러) 연체경험은 있으나 미회수금액은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정상적임.

2. 국제시장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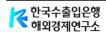
□ OECD,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

- o OECD는 안정적 경제성장세, 세제개혁 등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외 유동적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한 점을 들어 기존 6등급을 유지함.
- o Moody's,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 또한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투자 부적격등급(B+ 수준)을 유지하였으나, IMF 확대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개혁 이행경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.

< 丑 3>

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6등급 (2017. 6)	6등급 (2016. 6)
Moody's	B1 (2017. 6)	B1 (2016. 1)
Fitch	B+ (2017. 2)	B+ (2016. 2)

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□ **국교 수립**: 1977. 11. 14 수교 (북한과는 1970. 6. 25 수교)
- o 수교 40주년을 맞아 유상원조 확대 등 양국간 교류 활성화 기대
 - 2017년 한-스 수교 40주년을 맞아 스리랑카 시리세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(11.28~30)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* 지원 확대, 스리랑카 근로자의 한국 취업 확대, 우리기업의 스리랑카 건설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.
 - * 스리랑카는 베트남, 방글라데시 등에 이은 EDCF 제5위 수원국
- □ **주요 협정**: 항공협정('78), 문화협력협정('78), 투자보장협정('80), 무역협정('84), 이중과세방지협약('84), 과학기술협력협정('94), 무상원조협정('09)
- □ 해외직접투자현황: 2017년 9월말 누적 기준 180백만 달러(177건)

□ 교역규모

- o 우리나라의 79위 수출시장으로 수출액은 2009년 내전 종료 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.
 - 주요 수출품목인 편직물, 고무는 우리 투자기업의 원·부자재에 해당하며,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 붐으로 철강판과 기계류의 수출비중이 늘고 있음.
 - 주요 수입품목인 의류는 현지에서 우리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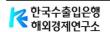
<班 4>

한 · 스리랑카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	분	2014	2015	2016	2017.9	주요 품목
수	출	314	278	276	215	편직물, 철강판, 합성고무
수	입	94	84	89	66	의류, 식물성 재료, 기타 비금속 광물
교역	규모	408	362	364	281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

V. 종합 의견

2017년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의 둔화세와 가뭄과 홍수피해로 인한 농업활동
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이
2016년 대비 소폭 상승한 4.7%를 기록할 전망임.
2017년 재정수지/GDP 비중은 IMF 경제개혁 조치 이행으로 -5.2% 수준으로
소폭 개선되고, 경상수지/GDP 비중은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업
호조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면서 - 2.5% 수준을 유지함.
시리세나 대통령이 2015년 초 취임한 이후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
2016년 IMF 확대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개혁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.
외화표시 채권 비중이 높고 외환보유액 수준이 낮아 대외변동성에 취약하고
외채상환능력이 낮음.
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5% 전후로 예상되며, 세계경기회복과 중국 등과의
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, 민간 투자 확대가 성장률 상승을 견인
할 것으로 보임

조사역: 김은경 (☎02-6255-5725)

E-mail: lenakim@koreaexim.go.kr